

광주시립예술단 3개 단체 수장 교체

소년소녀합창단·교향악단·오페라단
창극단·발레단 예술감독은 2년 연장
오디션 공정성 놓고 시립극단 논란 일어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광주시립교향악단, 광주시립오페라단 등 세 개의 시립예술단체의 예술감독의 임기가 오는 31일자로 끝남에 따라 새 수장을 찾을 전망이다.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전경.

광주시립예술단 3개 단체 수장들이 교체될 전망이다. 또 광주시립극단(예술감독 나상만)은 오디션 관련 공정성 논란에 휩싸여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은 올 12월 말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자 윤영문), 광주시립교향악단(지휘자 김홍재), 광주시립오페라단(예술감독 정갑균) 등 예술감독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단체를 이끌 새 예술감독을 찾을 예정이다.

회관측은 "예술감독 3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하지 않고 새 감독을 선임할 예정이다"며 "아직 구체적인 시기와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감독을 모시기 위해 최소 3~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소년소녀합창단 윤영문 지휘자는 2013년에 선임돼 6년간 단체를 이끌어왔으며 시립교향악단 김홍재 상임지휘자는 지난 2016년 임기를 시작해 4년간 광주시민과 만났다. 또 정갑균 오페라단 예술감독은 지난 2017년 위촉됐다.

시립교향악단의 경우 김영연 부지휘자와 객원 지휘자가 무대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며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시립합창단과 연계해 무대를 꾸밀 계획이다. 반면 시립오페라단의 경우 내년 공연 계획이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시립오페라단은 지

난 9일 오페라 '박하사탕' 시연회를 열었다. 오는 2020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기획된 이 작품은 내년 정기공연으로 무대에 올려질 계획이었으나 예술감독의 부재가 예상됨에 따라 공연 또한 예측할 수 없게 됐다.

반면 지난 2017년 위촉된 광주시립창극단(예술감독 유영애)과 광주시립발레단(예술감독 최태지) 두개 단체 예술감독 임기는 12월 말로 끝나지만 2021년까지 2년 더 연장됐다.

한편 시립극단(예술감독 나상만)은 지난 11월 선 보인 '제자매' 오디션을 공정성과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다. 광주연극협회(회장 원광연) 관계자는 "지난 8월 오디션 공고가 났는데 1, 2차로 진행된 오디션에서 떨어진 배우들에게 서류만 써오면 합격시켜 주겠다는 제안이 있었다"며 "공정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 광주시측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극협회 측은 이와 관련해 시립극단에 사과와 시립극단과 지역연극인의 상생방안을 촉구한 상태지만 현재 시립극단측에서 사과문만 보내온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회관 관계자는 "연극협회 측에서는 공정회 등을 통해 오디션 공정성과 관련, 시립극단의 운영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며 "일부에서는 공정하지 않은 오디션을 할 바에는 극단을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격한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극단 예술감독의 임기가 내년 4월까지로, 이번 문제 제기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시립국악관현악단(지휘자 한상일)과 시립합창단(지휘자 김인재) 두 단체 감독의 임기는 각각 2021년 1월 17일, 2021년 6월 30일까지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주요 독자연령층 2030서 3040 전환 판매 1위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교보문고 '2010년대 베스트셀러 결산'
멘토의 조언·위로의 말 큰 인기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2위
'7년의 밤' 가장 오랫동안 사랑 받아



가구당 서적구입비와 성인 독서율이 하락했으며 주요 독자연령층이 2030에서 3040로 변했다. 이는 교보문고가 최근 발표한 '2010년대 베스트셀러 결산'에 나타난 주요 흐름을 요약한 부분이다.

성별 도서구입 비중은 여성과 남성 비율이 2010년이나 2019년이나 크게 변화는 없었다. 6:4의 비율을 뜻하는 6:4법칙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전반적인 도서 시장은 여성 우위가 지속됐다. 다만 이러한 수치를 바탕으로 여성들이 남성 대비 1.5배 더 많이 책을 읽는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성인 독서비율(한국출판연구소·문체부 독서실태조사)은 2010년 65.4%에서 59.9%(2017년)로 하락했다. 1995년 이후 해마다 70%를 오르내리던 성인 독서율은 2010년 처음으로 65.8%로 크게 하락했다.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2013년에는 다시 71.4%로 70%를 넘었다가 2017년에는 급기야 60%가 무너지며 59.9%라는 최저 독서율을 기록했다.

가구당 서적구입비(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또한 2만1902원(2010년)에서 1만2054원(2018년)으로 무려 45%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가계의 '오락 문화비' 지출이 해마다 늘어나는 동안 서적 구입비는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아울러 구매편 독자 연령대를 보면 10년 전 최대 독자층이었던 20대의 경우 2010년엔 37% 비중에서 올해는 19%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그 자리를 40대에 넘겨 주었는데, 이는 주요 독자 구성이 2030에서 3040으로 변화했다는 모습을 보여준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도 숨가쁘게 변화를 거듭해왔다. 이 변화를 견인한 핵심 요인은 다름 아닌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모바일이었다.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기기로 자리잡았다.

스마트폰이 생활 중심에 자리잡으면서 문화생활의 양상도 변했다. '분방사수'는 어느덧 구닥다리 용어가 됐고 넷플릭스를 비롯한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세를 떠돌았다.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와 유튜브, SNS 영향력이 늘면서 서점가에는 '유튜브셀러'와 같은 신조어가 등장하고 SNS를 통한 입소문으로 화제가 된 책이 베스트셀러 순위에도 오르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었다.

빠른 시대의 변화 속에서 지친 독자들은 책을 통해 스스로 마음을 다독이며 위안을 얻었다. 그 영향으로 1910년대에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2년 연속(2012~2013년) 종합 1위에 올랐고



2010년대 종합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나온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도 각각 10년간 종합 15위와 47위를 차지하며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2위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판타지와 감성적인 이야기를 다룬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 차지했다. 이 책은 2013년부터 종합 100위권 내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소설이다.

3위는 '청춘' 키워드의 시작을 알린 김난도의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뒤를 이었다. 또한 4위와 5위는 각각 기시미 이치로 '미움받을 용기', 이기주 '언어의 온도'가 올랐다.

이처럼 멘토들의 조언과 위로의 말이 큰 인기를 거두면서 에세이 분야의 다양한 저자가 발굴되고 출간중수도 대폭 늘어나면서 에세이 분야가 각광을 받았다.

2010년대 종합 100위에 가장 많은 책을 낸 작가는 유시민이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국가란 무엇인가', '역사의 역사' 등 모두 4권이 100위에 올랐다. 무라카미 하루키, 헤밍웨이 등 3종의 도서가 종합 100위에 올랐다.

연간 종합 100위에 가장 많은 작품을 올린 작가는 기우 뮌호로 12종이었고, 히가시노 게이고는 11종의 도서였다.

10년 동안 연간 종합 100위에 가장 오래 머무른 책은 정유정 작가의 '7년의 밤'이었다. 이 책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 연속 매년 종합 100위권에 이름을 올리면서 가장 오랫동안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책이 됐다.

또한 한국 미스터리·스릴러 분야의 새 장을 열면서 마니아 독자층이 형성됐으며 지난해 영화 개봉 이슈로도 관심을 끌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4기 이사회 공식 출범

비상임 이사 12명·감사 1명 발표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운기) 제4기 이사회가 공식 출범했다.

문화재단은 최근 공개모집을 통해 확정된 비상임 이사 12명, 감사 1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제4기 이사회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당역직 이사 3명(광주시장, 광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대표이사)과 선임직 이사 1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선임된 비상임 이사와 감사는 2019년 12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26일까지 3년간 문화재단 임원으로 활동한다. 재단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 정관 등 규정 제·개정 및 폐지 등 핵심적인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광주시의회·광주시·문화재단이 추천한 7인의 임원추천위원회가 1차 공고와 2차 재공고를 실시해 총 39명이 공개모집에 응시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를 통해 임원후보자 24명을 이사회를 거쳐 이사장에 추천했고, 이용섭 이사

장이 이사 12인과 감사 1인을 최종 확정했다.

제4기 이사회 비상임 이사와 감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사=김미옥(전 광주대 음악학과 겸임교수), 김성(전 국회의원 비서실장), 김옥희(전 광주예술고 교사), 김인설(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원(반석약품 대표이사), 박헌택(영무토건 대표이사), 윤만식(한국민족공동체문화 이사장), 이동순(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장경화(전 광주시립미술관 학예관), 천득염(전남대 건축학부 석좌교수), 한선(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황병하(조선대 아랍어과 교수) ▲감사=김민표(김민표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문화관광재단 '2020년도 문화예술사업' 공모

전남문화관광재단은 '문화예술 창작활성화를 위한 2020년도 전남 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를 2020년 1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전통, 시각, 공연, 문학 등 문화예술 전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지역문화예술 육성 ▲문화예술해외교류 ▲공연예술창작 ▲레지던스 프로그램 ▲우리마을 아트페스티벌 ▲청

년예술가활동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등 총 7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1억원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남에 주소를 두고 활동 중인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만 지원신청 가능하다. 단, 우리마을 아트페스티벌은 특화된 아트페스티벌 기획을 위해 타 지역 단체도 신청 가능하도록 열어두었다.

또 문화예술지원 공모는 전문 예술인이나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개인 및 단체의 자부담 편성 의무는 없으며, 개인은 1년, 단체는 4년(지역문화예술육성은 3년) 연속지원에 대한 휴식년제가 적용된다.

설명회는 오는 31일 오후 3시 순천시문화예술회관 소극장, 2020년 1월 31일 오후 3시 무안 남악복합주민센터 공연장, 1월 6일 담양군문화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어려운~ 부자되세요!

나주산약초 나주시 동점문길8 (나주티미널빌) 미세먼지 걱정없! ☎061)333-4514, 010-3620-7268	향촌 서구 상무화원로 32번길 29-3(차명동) 한우, 생삼겹살, 돼지양념갈비, 대패삼겹살 육회비빔밥, 제육볶음, 김치찌개, 냉면 시골떡국 단체손님환영 ☎062)371-0583, 010-3947-0005	우영생기원 동구 독립로 282-10 (대인동) 2층 척추교정, 기저로, 유전질환치료, 건강상담 수액, 명약, 철학, 작명, 공학, 태일, 도인양성 각 분야 개인지도 ☎062)236-2655, 010-3646-2977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공학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따뜻한내과·건강검진센터 북구 운암동 남양휴튼2차상가 2층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 2인 진료시간 : 평 일 오전 8:30~오후 6시 토요일 오전 8:30~오후 1시 원장 이상선·박민규 ☎062)511-3388	三代(삼대)원조 나주공탕 무안군 삼향읍 오동2길 14 (전남도청 옆) 태양집 60년 전통 수육, 수육무침, 육회 포장가능 단체환영 ☎061)287-3229, 010-3602-0297	황금세차장 (주) 남구 송암로 27번길 23 (송암공단에서 호천지구방향 진입로옆) 초대형셀프세차, 손세차, 광택, 유리막코팅 대표이사 김용연 ☎062)652-4564	참깨와들깨 나주시 나주로15 (나주신협앞 다리 건너 위) 김밥·멸치국수전문점 김밥8멸치육전국수 ☎061)332-9992, 010-7103-2556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OK 당구장 동구 대인동 220 대인농협옆 (가오무대 지하) 포켓대 당구대설치, 최신시설완비 냉·난방 완비 친절, 신용 본위 ☎ 010-8005-0188	완도전북 나주시 나주로 131 (나주신협옆) 산지 직송 도소매 전국택배가능 ☎010-2831-9257	골프가방수선전문점 서구 치평동 세정아울렛점문 동양빌딩앞 명품가방수선, 골프가방수선, 등산화수선 전문점 ☎ 010-2087-3592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관리분석 대표 정민각 ☎ 062)263-2223	해동공인중개사부동산컨설팅 나주시 산포면 468-4(산포면사무소 입구) 토지·임야·주택·아파트·망 각종부동산 매매 상담 ☎ 061-337-8244, 010-3626-9040	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 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주)로만손시계 (주)오리엔트시계 동구 호남동 13-3 금, 은, 고급시계 상담대환영!! 광주, 전남 대리점 A/S센터 ☎062)232-0038, 010-2290-0038	진주공방 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족공예 수업 및 주문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소품만들기 ☎ 010-3906-1718	청강창호 북구 청계로 67(용봉동) 현대하이사시 + 피엔에고사시 제작설치전문 ☎062)528-7711, 010-3612-9794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광주갤러리경매장 동구 대인동 동부소방서후문인 침종은빌 1층 수석, 동양화, 서양화, 민속품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2시부터 ☎ 010-6778-9330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